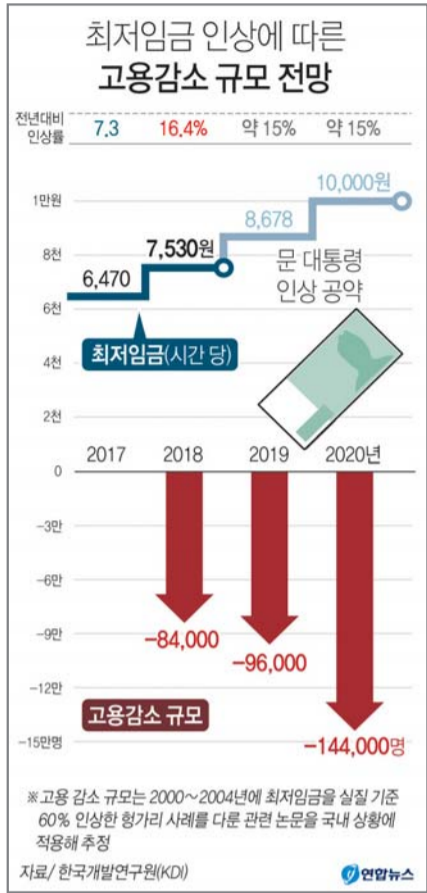


국책연구원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고용 8만명 ↓

(KDI)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2020년까지 1만원 고집면
연간 14만명 일자리 날아가

최근 최저임금 상승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은 문 대통령과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와 같은 인상률을 기록할 경우 고용감소 현상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000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올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고용감소 효과는 아주 작아 보인다

4일 KDI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헝가리 관련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략적으로 하한은 3만6000명, 상한은 8만4000명이었다.

KDI는 국내 임금근로자 수 2000만명에 미국과 헝가리 사례에서 추출한 고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탄력성을 각각 곱하고, 지난해 대비 올해 임금증가액 대비 최저임금 비율 상승폭 12%(2017년 0.49→2018년 0.55)를 곱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월까지 고용동향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없거나 아주 작다"면서 "구체적으로는 2018년도 통계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DI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 15%씩 인상한다면 고용감소는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위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악화하며, 정부지원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최저임금 발언이 나왔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다시 옮기며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

로자 임금이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비근로자의 소득감소,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걸 별개의 문제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분명히 나눠서, 근로자구에 대해 90%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다시 설명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업 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속한 최저임금 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보수정치가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촛불의 힘이 세운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 신청 마감일인 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통신부에서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왼쪽부터),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5G 주파수' 전쟁 시작 이통3사 할당신청 완료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가 4일 주파수 할당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통 3사는 이후 경매가 열리는 15일까지 대역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6월 4일자 3면 참조)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통신 3사는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5G 주파수 할당신청서를 제출했다.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순서대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간격을 두고 신청서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3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8일 할당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15일 경매를 진행한다. 5G 상용화 예상 시기는 내년 3월이다.

적격심사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의 재무능력·주파수 활용 계획의 적정성·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3사 모두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열리는 주파수 경매는 한 사업자가 가져가는 주파수 블록 개수를 결정하는 1단계(클락입찰)에 이어 블록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블록입찰)로 진행된다.

3.5GHz(기가헤르츠) 대역은 100MHz(메가헤르츠)씩 28개, 28GHz 대역은 100MHz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최저경쟁가격(시작가)은 3.5GHz 대역(280MHz폭) 2조6544억원, 28GHz(2400MHz폭) 6216억원 등 총 3조 2760억원이다.

/김민하 기자 silkni@

"1인당 최대 3000만원 지원 '청년미래기금' 만들 것"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숙대생 만나 청년 고민 청취
청년 장래 설계 공약 내걸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대학생과 만나 청년세대의 고민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4일 오후 12시 15분께 숙명여대 새힘관 앞 잔디밭에서 학생 네 명과 도시락을 먹으며 청년 정책의 맹점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보다 일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는 대학생들에게 창업지원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화에 참여한 숙명여대생 지효민 씨는 "엄격한 기준을 거쳐 몇 개의 기업이라도 제대로 키웠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박 후보는 "(공무원) 성과중심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제대로 된 성장까지 일관되고 집요한 지원을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오후 숙명여대 새힘관 앞 잔디밭에서 학생들과 도시락을 먹고 인사하고 있다. /이범종 기자

것"이라며 "서울시 스타트업 담당자들 해도 되겠다"며 화답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스타트업이 설립 취지와 달리 지자체 지원금에만 매달리다 문 닫게 되는 문제, 대학생의 주소 등록지가 지방이라는 이유로 면접 시 정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에 박 후보는 수도 서울의 역할을 강조하고, 출신지를 가리지 않는 청년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청년에게 투자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있고, 소홀히 하는 나라는 어려워진다"며 "시장이 된다면 직업 탐색기간과 뉴딜 일자리 등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선거에서 박 후보는 청년의 장래 설계 공약으로 '청년미래기금' 조성을 내걸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연이자 0.5%로 최대 10년동안 지원한다. 연간 1000억원 규모

로 기금을 조성해, 1년에 최대 5000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3000만원을 지원받은 청년이 취·창업과 자기모색 등 삶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금은 소득중위 150% 이하로 중산층 청년까지 포괄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또한 청년이 직접 서울시 정책에 참여하는 길도 열어놓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에 34세 미만 청년의 15% 참가를 의무화해, 세대균형적인 시각으로 서울시의 주요 심의와 결정이 진행된다는 구상이다.

25개 자치구별 '서울청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고용·일자리·복지·생활·심리상담·커뮤니티 지원·창업과 공간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원 받은 경험이 없는 만 35세 미만의 청년 예술가에게 3년 간 작업 공간과 발표, 해외 진출 기회 등을 제공하는 '청년예술가 무한기회 프로젝트'도 약속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간편식 인기로 즉석카레·라면 가격 상승

소비자원 '간편식품 판매가격'

전년대비 등락률 3.8%~-2.7%

최근 간편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즉석카레·라면·탕 등의 가격이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주요 간편식품의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주요 간편식품 평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등락률은 3.8%~-2.7%이었다. 상승한 품목은 즉석카레(3.8%)·라면(2.1%)·탕(1.4%) 등 4개였고, 하락한 품목은 컵밥(-2.7%)·즉석죽(-1.7%)·즉석짜장(-0.4%) 등 3개였다.

최근 4주 전과 비교했을 때 즉석죽(4.2%)만 가격이 상승했고, 즉석짜장(-1.3%)·즉석카레(-1.3%)·스프(-1.0%) 등 나머지 9개 품목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체별 가격차가 가장 컸던 상품은 '양반 전복죽'이었고, 최고·최저가간 40.4%의 가격차를 보였다. 이어 '동원 양반 최고기죽'(38.8%), '오뚜기 3분 최고기죽'(38.4%) 등의 순으로 가격차가 컸다.

전국의 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SSM 100곳을 대상으로 판매점포 수가 가장 많은 10개 상품(품목별 1개씩)을 선정해 총구입비용을 계산한 결과, 대형마트(1만 5926원), SSM(1만 7674원), 전통시장(1만

7714원), 백화점(1만 8728원), 편의점(2만 1899원) 순으로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가 편의점보다 27.3%, 백화점보다 15.0% 더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입비용을 전년대비 비교했을 때, 백화점(1.7%)·전통시장(1.5%)은 상승했으며, SSM(-7.7%), 대형마트(-2.8%), 편의점(-0.2%)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동일한 제품이라도 유통업체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가격비교를 통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참가격 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ju7854@

품목	가격	전년 대비 (%)	
즉석카레	↑ 3.8	↑ 2.1	
라면	↑ 2.1	↑ 1.4	
탕	↑ 1.4	↑ 0.2	
컵라면	↑ 0.2	↓ 2.7	
컵밥	↓ 2.7	↓ 1.7	
즉석국	↓ 1.7	↓ 0.4	
즉석짜장	↓ 0.4	-	
매장	2017년	2018년	변동률 (%)
대형마트	1만 6383	1만 5926	(-2.8)
SSM	1만 9143	1만 7674	(-7.7)
전통시장	1만 7452	1만 7714	(1.5)
백화점	1만 8424	1만 8728	(1.7)
편의점	2만 1933	2만 1899	(-0.2)